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8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8. 30(금) 14:00 ~ 15:22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구문모 위 원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성기숙 위 원  
이훈경 위 원  
왕치선 위 원  
장미진 위 원  
정갑영 위 원  
홍성태 위 원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8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3인의 신임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3인의 위원님들을 환영하면서 전체회의 개회 전에 한 분씩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 종료 후에 3인의 신임 위원님들께서는 청렴 서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문모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구문모 위원** : 지난번 첫 번째로 위원님들과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연구소에 있을 때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업무,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참여를 해왔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위원이 된 후에 자세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신중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제가 위원회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기숙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무용 위원으로 이번에 합류하게 된 성기숙입니다. 지난번 OT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무처하고 우리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의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계 대전환기이고 변곡점인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훌륭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먼저 출발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치선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먼저 출발하신 위원님들께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여쭙고 사무처의 도움을 잘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3인 위원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내부위원 추가 구성 등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이성진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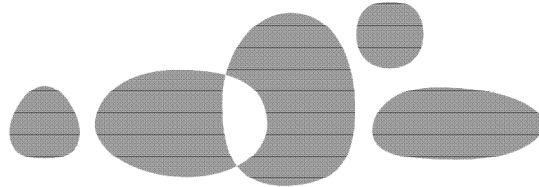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7월 26일 개최한 제378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되어서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서면으로 개최한 제379차와 제380차 회의에 상정된 의결안건 각 1건, 총 2건도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73호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내부위원 추가 구성의 건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7페이지 의결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내부위원 추가 구성의 건입니다.

소위원회 운영개요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임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에 구성 근거가 있고 또 내부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1년 단위로 구성이 되고 지난 4월 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서 현재 3개 소위원회가 내년 4월 4일까지 임기를 가지고 시작된 지 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는 기관 중장기 전략과 문예기금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경영전략소위원회. 그리고 예술후원활성화, 문화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그리고 예술 장르별 현안과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성평등 예술활동,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로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보통 1개 소위원회 또는 2개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되신 3인의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소위원회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 추가해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신임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희망하시는 소위원회에 대해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문모 위원** : 첫 번째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그리고 경영전략소위원회인데요. 한 군데만 할까요, 두 군데를 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죠.

**구문모 위원** : 두 군데로 하겠습니다.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와 경영전략 소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다음으로 성기숙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저는 경영전략 그리고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왕치선 위원님.

**왕치선 위원** : 저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안건을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74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10페이지 의결안건 내용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처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에 우리 기관이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인문정신문화 관련 사업이 약 171억 원 규모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 사업이 문학지원팀 소관 업무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식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인문정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 소관본부인 예술지원본부 내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인문정신 확산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라서 기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후에 해당팀 인사발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9월 9일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문진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약 17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게 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행령상에는 3년마다 이 사업을 주관 기관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술위원회에서 맡아서 들여다보니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억 원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수탁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해당 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게 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재를 하면서 보면 인문진흥 사업과 관련된 문서들을 반려한 적이 많습니다. 보류를 시키거나 다시 확인을 하고 전부 점검을 할 정도로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길위의 인문학 사업 같은 경우

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했던 것을 보니까 강사 한 분을 모시고 어느 한 지역을 가서 역사, 철학 강의를 하는 게 길위의인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사람이 열댓 명이고 들어간 비용을 따져 보니까 1인당 하루 기행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30~15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청년 연수프로그램인데 4박 5일, 5박 6일을 국내에서 진행하는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정하고 재설계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지를 봤더니 3년마다 기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팔로우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의례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문체부 장관께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한 기관이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계속 운영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원 보장을 해서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도 충정로 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는데 거리감도 있고 우리 사업, 우리 직원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도 없었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라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사무실도 이 근방으로 옮겨서 체계적으로 해 내려고 직제 개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제가 쪽 나와 있는데요. 인문정신확산팀은 다른 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첩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중첩되지는 않고요.

**구문모 위원 :** 고유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설명드리시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인문사업은 박물관,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 메인인 길위의인문학, 지혜학교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인생나눔교실이라고 해서 성인 멘토들이 청년 멘티를 후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봐서는 문학 영역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문학지원팀에 배속을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규모나 이해관계자, 파트너 기관들이 상당히 다른 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문정신확산팀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그 업무가 원래 만들어질 때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이런 용도로 해달라는 게 있나요? 지금 몇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의 구성 등을 전달기관과 협의해서 꾸려나가게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문체부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해서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아까 말씀처럼 문학지원팀에서 길위의인문학이라는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데 인문정신확산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일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이관을 하는 건 아니고, 문학지원팀에서 운영하던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커서 공식적으

로 별도 팀을 꾸리게 된 겁니다.

**성기숙 위원** : 팀이 새롭게 꾸려지게 되면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까지는 차장급이 주관을 했고 그 산하에는 대부분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팀장 한 명이 발령이 나고, 정규직 직원들도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5년에 인문정신확산팀에서 설계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연장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인생나눔교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청년이나 중장년 또는 사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전체 규모가 1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전체적으로는 문화정책과에서 설계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문화정책과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설계가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시행된 것들을 점검한 결과 의도한 만큼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될 팀에게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도록 했고요. 아마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정갑영 위원** :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도서관협회와 박물관협회가 나눠서 했던 게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잘해 왔겠지만 박물관협회와 도서관협회에서 하던 일이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이 되나요? 팀을 만들었지만 전체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인력이 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다시 박물관협회나 도서관협회에 내려보내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겠죠?

**송시경 사무처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폐지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등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인원 증원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위원장님께는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갑영 위원** : 박물관협회나 도서관협회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것보다 예술위원회가 했을 때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인문학 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다른 지원사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첫째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결국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점검인데요. 프로그램 점검이라는 게 얼핏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배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인문정신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실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딩 상의 문제입니다. 본부가 예술지원본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과 인문정신은 좀 다른데요.

가능하다면 예술인문지원본부 등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정갑영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지 않아도 새롭게 팀이 구성되기 전에 이 사업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설계를 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아울러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폐지 사업 등을 고려해서 인원 문제를 해결해보겠고, 김진각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제부총리 면담을 하면서 상용임금 문제 등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일부가 반영돼서 인력 운용의 여지가 생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갑영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75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1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진행말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공개,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공개로 진행이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까지는 회의가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다 공개로 했고요.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가 요구하면 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성기숙 위원** : 회의자료에 회의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할 때는 꼭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개정 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과 다음 호의 안건으로 되어 있는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이 기본규정에 개별적으로 존재를 했는데요. 그 2개의 규정 간 제정목적이나 내용의 유사성이 높아서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체계를 재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개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규정에 적용을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서 설명드렸던 인문사업 등 수탁사업이 올해 기준 24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수탁사업들도 지원심의 운영 시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관리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심이라든 것이 기관의 핵심 업무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고 비문이나 용어 표현의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도 이번에 전면 검토하면서 수정사항이 많아 전부 개정, 전면 개정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규정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서 지원

심의 운영규정으로 규정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지원심의 운영규정과 심의 업무 공정처리 규정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고 재배치해서 해당 규정의 체계화를 조금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각각의 규정에서 가져온 핵심 내용은 그다지 바뀐 것이 없고요. 다만, 16페이지 제3조의 적용 범위가 당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을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 심의 운영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4항에 “사무처는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사유를 심의결과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한다.” 라는 해당 조항이 당초에는 공공기관소속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인문정신진흥이나 다양성 사업 등 장르에 한정되지 않은 수탁사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심의위원 후보단 안에서만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전담심의위원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전담심의위원에 한해서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구성한다는 조항을 해당 의결을 받을 때 넣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이 되더라도 전담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전담심의위원 후보단 안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로 보여줘야 조금 더 이해가 될텐데요. 왜 신·구 대조표로 문서를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전면개정의 개정 범위가 거의 매 조항마다 비문을 수정한 사항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76호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폐지(안)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당초에 있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과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을 통폐합하면서 그에 따른 공정처리 규정에 대한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정부안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 수립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예기금 정부안이 지난주에 확정돼서 기재부로부터 예술위원회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술위원회와 문체부 협의를 통해서 5월 31일에 기재부로 제출이 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 기재부 사업설명과 검토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건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모든 지출에 대해서 10% 이상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문예기금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한도를 10% 감액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도 기존에 공유해 드린 사항인데 중복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문체부에서는 지역과 중앙과의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증액에 대한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진각 위원님께서도 협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모든 요구가 다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꽤 많은 사항들이 현재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339억 원으로 전년도 4,256억 원 대비 2% 증액이 되었고 2025년에 요구한 값인 4,431억 원과 비교해 보면 2.1%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지원에서는 지역에서 1차 지원한 작품을 예술위원회가 2차 지원해서 전국단위의 작품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이 48억 원 신규 반영이 되었고요. 소극장학전재대관지원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개최되는 문화예술세계총회에 6억 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예술가와의 협업을 위한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사업은 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기존에 예술인력육성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통합해서 86억 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과의 통합에 따라서 기존 공연예술전문지원사업 예산이 순감되었고요. 예술인력교육플랫폼 문화예술 내일은 운영 비용으로 8억 원을 요구했는데 해당 예산이 순감 돼서 현재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은 올해 242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79억 원으로 38억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내역은 예술나무운동에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후원활성화가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의 문화예술향유지원은 크게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1인당 발급금액이 올해는 13만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만 원이 증액된 14만 원으로 반영돼서 239억 원이 증액된 2,636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운영비는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234억 원인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신나는예술여행에 포함되어 있던 상용임금이라든가 기관청사 안전보장 등 사업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부안 지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10개 세부 사업내역을 지출 총괄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내역의 증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구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창작이 25%, 향유가 70%, 기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타 기관에 교부되는 사업이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역들은 조금 전까지 설명

을 드린 내역의 세부 사항이라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예산 항목에서 줄어든 것이 예술인력육성이고요. 대표적으로 늘어난 게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인데요. 하나는 예술인력육성 예산의 감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줄게 되면 문화예술인력을 그동안 육성해 왔는데 부작용이 없는지? 물론 있겠지만 부작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게 증가했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재정당국을 설득하기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재정적 서포터를 하려면 하나는 국가재정으로 하거나 하나는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도 많이 기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부금 제도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확산에 대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연수단원 지원사업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은 실제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액분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과 통합됨으로써 감액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산이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창작뮤지컬아카데미 같은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폐지된 것이라 실제 수혜를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술인력교육플랫폼 문화예술 내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만들었고 이제는 운영하는 비용으로 8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일단 국회에 추가 증액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좀 활용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원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예산의 대부분, 약 45억 원 정도 추가 증액된 게 민관협력 관련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얼마를 지원하면 예술위원회가 얼마의 마중물로 함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메세나협회에 재위탁을 하는 수행방식이었는데 일부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공모사업이나 기금에 의존하는 예술단체에게 기업의 기부금을 유치해서 조금 더 자립성이나 지속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이 부분을 진행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술단체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스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하겠다” 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매칭비용으로 1억 원을 쓰면 기업유치 유발 효과가 2.65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성과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4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억 원 정도면 100억 가까운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정부만 바라봤는데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술정책·후원센터를 사무처장 직속기관으로 두고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원센터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던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으자.” 그래서 목표는 현재 정부예산으로 예술인들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액이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1,000억 원까지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예술인

지원정책이 월등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허황된 목표인 것 같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사회적 후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이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이번에 위원장님과 사무처의 노력으로 굉장히 선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신규로 반영된 지역 예술도약지원사업 48억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확정되었는데요. 기존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역 문화격차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대표예술지원이나 지역공연장유통사업이 지방과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술위원회에 신규 반영된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하고 사업의 내용에서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가 지원하는 전체적인 컨셉을 1회성으로 나눠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단계에서 하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도록. 그래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설계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예술인들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술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청년도약사업에 자동으로 일부가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청년도약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그 이듬해에 창작제작지원사업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진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기관 간에도 전부 다 연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가 새로 오셔서 같이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기관 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던 사업들을 대부분 지방 문화재단에 넘겼는데 중앙이나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지 못해서 지방 사업들은 지방 간에 경쟁을 해서 그게 선발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인력들을 지원해서요.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공연도 하고 그게 성과를 내면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돌고요. 또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서 해외로도 나가요. 이것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지방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열심히 하면 중앙이나 세계까지 나갈 수 있게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재 방침이기도 하고 장관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의도한 것과 딱 맞아떨어져서 증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출 정리된 것을 보면서 살림살이를 잘 한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출이 줄었고 필요한 사업비는 더 늘었고 내부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건 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유자금운용이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예상하는 것까지 많이 줄었는데 여유자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출을 줄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가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여유자금운용 같은 경우는 수입 대비해서 지출의 차액만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으로 지출하는 것. 기금운영비는 인건비나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비용, 정부내부지출은 반납하는 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유자금운용 같은 경우는 수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출의 합계의 차액만큼을 여유자금운용으로 두는 것이어서 지출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숫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 : 이해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술계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관별 지방 매칭으로 다단계로 해서 해외진출까지 한다고 하면 순수예술 창작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명작이 오늘날 만들어져야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결과치로 나타난 것은 오늘의 명작이 미래에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로 확보하신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훌륭한 완성품이 만들어져서 목적을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 소위원회 4차, 5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 35쪽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4차, 5차는 8월 1일과 8월 27일에 온라인 혹은 영상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안건은 5가지입니다.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경과와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인적자원 운영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계획. 이것은 우리의 내용은 아님니다만 보고서항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아르코 50년사 발간자료는 마무리 단계인데 그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했던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정부안입니다. 논의는 아니고 그냥 사무처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은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핵심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경과는 사무처에서 예술계 종사자,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참고자료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것은 중장기전략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장르별 서면 인터뷰 내용은 36쪽에 있으니깐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그리고 내부의 직원 모두가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관한 적격성 여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위원회의 주된 사업 방향이 창작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 논의에서는 “창작만큼 향유 영역도 지원해야 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3개 영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치해요. “창작도 지원하고 향유도 지원해야 된다.” 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나 우리 문예진흥법상 내용이 주로 창작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정 내용을 좀 들여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관 경영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처도 동의를 하고 조사결과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전문성에 대한 함양이 참 중요하다.” 전문성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원기관으로서 각각의 전문성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영역에서,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 영역의 직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계속 있으면 문학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 직원이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 운영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고 공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깊이 논의가 되어서 도출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목적이 우리 내부 역량강화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꾸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자는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올해 연내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결과는 정리가 되면 아마 9월 중에 위원님들께 다 공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메일로 갈 거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안정화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는 원래 9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논의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기재위원장 같은 분이 여기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재원 안정화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바쁘다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안 맞아서 일단 11월 둘째 주 가운데 하루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인적자원 운영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계획과 아르코 50년사 발간자료 검토는 그냥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두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위원님들이 아주 애를 쓰셔서 설문조사도 진행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르코의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브랜딩 차원에서, 우리 아르코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슬로건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 수 있어서 큰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애를 쓰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임기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결과를 주시면 브랜딩 팀에서 브랜딩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 창작지원뿐만 향유지원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참여인원 비율을 보니까 예술종사자 같은 경우 11%고 일반국민이 74%를 했네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치가 향유로 기울어진게 아닌가요?

**정갑영 위원** :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부 조사, 일반국민 조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일반국민도 인구배분으로 정확히 나가야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은 떨어진다.” 다만, 우리 안에서 지금 전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으로 나가려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방향을 잡고 참고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미 위원** :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관의 목표나 미션이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 특히 향유 부분이 적은 것은 나중에 기재부나 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술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이 향유의 가장 큰 줄기였는데요. 물론 사업 성격 자체가 완전히 향유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개발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전략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소위원회와 서로 맞물려 발전시켜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각각 막혀 있고 각각 다른 우주로 돌아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국도 그렇지만 소위원회끼리도 조금 더 공유하고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확산시켜서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하신 설문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나 또는 저희 예술생태계 연구조사와 공유를 했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설문지를 같이 돌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2개 분과를 가다보니 한쪽에서는 예술생태계를 따로 하는데 설문 자체가..... 물론 어떤 설문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설문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유하기 전에 사무처 안에서 공유하는 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갑영 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문은 대외에 공표하거나 발표할 만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문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려면 전제가 되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잖아요? 표본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조사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사무처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다만, 사무처가 그동안 쪽 지원사업을 해 오면서 가졌던 생각과 이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 설문에 관련해서 우리 이훈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결과로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미 설문조사에 이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참고용으로 한 것이고 리서치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지만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 정도는 소위원회에 공유한다면 저희 역시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되면,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9월 이내에 메일로 드릴 테니까 그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및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뒷장의 브랜딩하고 후원활성화 라운드테이블과 4차 회의까지 있는데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활성화 라운드테이블은 7월 말에 열렸습니다. 우리 사무처와 소위원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학계, 기업재단, 모금기관, 체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후원활성화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하면 후원활성화를 가시적으로 만들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후원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주목할 내용은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재단의 사무총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9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기업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낸 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정몽구 명예회장이 개인의 돈을 내서 운영되는 일종의 개인재산이 투여된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돈을 내서 운영되는 재단이 사회 특히 문화예술 쪽에 공헌을 한다고 했을 때 공헌할 수 있는 창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정기부금단체가 문화예술 쪽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에 참여하는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처럼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내서 운영되는 개인 독립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수 후원기업, 예술위에서 운영하는 예술후원기업 인증제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는 예전에 예술위 위원도 했었고 지금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명예회장으로 계신 박병원 회장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개인의 기부활성화, 기업도 좋지만 문화예술 쪽에 개인이 기부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개인이 문화예술분야에 기부하는 비율이 높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 세제혜택도 많이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먼저 끌어내야만 개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면서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41쪽에는 소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고 후원활성화법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요. 후원활성화법이 10년이 넘었는데요. 기업의 매개역할 그러니까 예술위원회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메세나법으로도 불리는 법률인데 기업에도 호소력이 낮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법률이고 후원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법률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후원활성화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용을 좀 만들어서 개정안에 담고 그것을 법률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쪽에 기업문화재단, 저희가 평가지표. 기업의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회에 용역을 주고요. 가칭인데 ‘민간공익법인 문화예술후원 지수’ 산출을 위한 용역으로 정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는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의 브랜딩 문제, 홍보가 좀 부진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라운드테이블을 먼저 했고요. 예술의전당에 계신 분들, 학계, 언론의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예술위원회가 50년이 되었는데 브랜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인식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 문제로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예술위가 어떻게 브랜딩을 정립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업이 많은데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I가 사업별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홍보콘텐츠와 관련한 가이드가 담길 필요가 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래서 예술위 CI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예술위원회가 그동안 예술계, 예술현장,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술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인지도가 약하다. 그래서 인지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결국 홍보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거의 B2B처럼 되어 있는 조직의 성격을 B2C로 바꾼다고 하면 예술가가 매개체가 돼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재미있는 콘텐츠. 질도 좋지만 양적으로 승부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후원활성화나 브랜딩 문제나 홍보의 문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예술가치확산과 관련된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그것과 맞게 예술위원회도 조금 더 예술가치를 확산시키고 브랜딩에 특화된 조직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후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고 홍보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홍보의 방식보다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한류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문화예술보다는 그 외의 비 문화예술 쪽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후원에 대한 콘셉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든 해외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도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어떤 형태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문제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정치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후원을 할 수 있는 동기가 CI든 BI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두 번째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이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 활동이 정말 의미 있는지를 관찰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주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런 쪽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을 했을 때 후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후원하는 것은 자기의 돈이 쓰여지는 용도가 굉장히 투명해야 하거든요. 이런 후원에 대한 사업이나 성과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는 별도로 굉장히 투명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절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5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5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5차 회의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장애문화예술 분야 생태계 파악 및 소통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극 분야가 1차로 토론회가 끝났고요. 몇 달 동안 길게 준비한 장애예술 쪽의 소통토론회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9월 전체회의 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일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면 꼭 참여를 해 주셔서, 장애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예술가와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장애예술인들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함께 참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명근 발제에 김은정, 심현우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

할 것이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마무리와 정리는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 외에 전통 쪽도 아직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음악과 무용 쪽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쪽 장르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에 대한 토론회를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예술창작주체 라운드테이블 보고안건입니다.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축제 지원사업, 중장기창작지원, 예술전문인력지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정리된 것들을 공연예술 분야 쪽에서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정리되면 추후에 진행되는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필요하신 사안은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잔여예산으로 이전지역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개 작품 중에서 장르별 1개 작품씩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계속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내용이고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총원 및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게감이 있는 사안인 만큼 엄격한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후보단을 만드는 것과 그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제약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위원님들과 사무처에서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인원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선정위원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몇 가지 사안이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6차 회의를 진행해서 정리하고 장애문화예술 토론회도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토론회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홍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님과 정병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1차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와서 직접 사업에 녹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생태계 파악을 위한 토론회를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춘추관에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1부로 토론회를 하고 2부는 간담회로 그곳에 모인 장애인, 비장애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고요. 전기도 진행됩니다. 장애인예술 작품 오픈버스터전이 전시되는 곳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어 상징성이 있고 그날 많은 관광객들도 오실 것 같아서 관광객들도 관객으로 모시고 토론회를 할 예정이고요. 토론자는 6명 정도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를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차기위원회 일정안내입니다.

(위원회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9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9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 종료)

